

이슬람 지성의 개혁: 후세인 나스르 사상에 있어서 지식의 재(再)신성화

(Reforming the Islamic Intellectuality: 'Re-sacralization of Knowledge' in Seyyed Hossein Nasr's Thought)

들어가는 말

1999년 사회학자 Peter Berger는 그가 편집한 책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정치』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 “세상의 탈세속화: 개관”¹에서 “사회적 합리성의 증대에 따라 주술적이고 전근대적인 종교들은 소멸될 것”이라는 근대 합리주의자들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선언하였다. 현대 사회가 표면적으로는 세속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듯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급격한 탈세속화와 함께 전통적인 종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소멸되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적 또는 전통주의적 근본주의 신앙의 약진이 인상적이라고 Peter Berger는 설명하고 있다.²

보수적, 근본주의적 신앙의 확산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교권은 아마도 이슬람일 것이다. 서구 기독교 열강들의 식민지에서 탈피한 이슬람 국가들은 서구화를 통한 근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는 처절한 실패로 돌아갔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문화적으로는 급속한 세속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이슬람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의 부흥이 확산되었다. 서구 세속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슬람을 분리시키고 전통적인 이슬람 신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비무슬림 세계와의 합리적 대화와 공존보다는 이슬람의 공격적 확산을 강조했고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³ 따라서 이슬람 세계는 더욱 고립되고 경직된 세계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세계를 개방된 세계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무슬림 세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슬람을 향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슬람 세계관과의 합리적, 지적인 토론의 창구가 없다는 점이다. 근본주의적 이슬람은 합리성에 기초한 세속주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신학적 교리에 기초한 이슬람의 절대성을 무슬림들과 외부세계에 강요한다. 지적, 합리적 토론을 위한 가능성은 제한된다. 근본주의적 세계관의 영향력 아래에서 외부 세계와의 지적인 토론을 위한 이슬람의 창문은 계속 좁아져 왔다. 이슬람 세계관의 경직성과 그로 인한 이슬람 사회의 고립은

¹ 피터 버거 (편),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정치』 김덕영, 송재룡 옮김 (서울: 기독교 서회, 2002). 13-36쪽.

² 피터 버거는 근본주의 신앙의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교집단으로 이슬람과 복음주의 개신교를 예로 든다. Ibid., 21-24쪽.

³ 이러한 경향은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주장이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다. 사무엘 헌팅턴, 『문명의 충돌: 세계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2003).

이를 바라보는 외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 내부의 의식있는 지식인들에게도 안타까움이 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모든 정보가 열린 오늘날 상황에서 극단적 고립을 지향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신앙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는 이슬람 지식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슬람 세계를 구성하는 일반 무슬림들 역시 이슬람이 좀 더 개방적이 되고 비무슬림 문명과 공존을 바라고 있음을 여러 리서치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⁴

세계화된 오늘날 상황에서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거부하고 고립된 채 생존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 합리성에 기초한 종교 간의 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이슬람의 공교육 확대, 서구 합리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위성 TV나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혁명 등으로 인해 경직된 신학과 전통으로 무슬림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⁵ 따라서 이슬람 신앙의 초월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합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철학적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슬람 내부의 합리적 토론과 외부 세계와의 대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개혁주의적 이슬람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이슬람 신앙을 통해 세속화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되, 초월적 계시와 합리적 토론을 통합할 수 있는 지식의 재(再)신성화를 지향한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서구적 학문의 영향을 개혁주의적 무슬림 지식인들 중심으로 비무슬림 세계와의 지적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새로운 이슬람 철학을 재구성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⁶ 지식의 합리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슬람 신앙의 초월성과 영성을 합리적 지식과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이슬람 철학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⁴ 가톨릭 학자로서 이슬람 문명 전문가인 Esposito 교수는 갤럽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35개 무슬림 국가들에 살고 있는 수만명의 일반 무슬림들의 의식을 리서치 한 결과를 그의 책 *Who Speaks for Islam? What A Billion Muslims Really Think* 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리서치는 무슬림 대중 대다수가 이슬람이 타 문명과 공존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Cf. John L. Esposito and Dalia Mogahed, *Who Speaks for Islam? What A Billion Muslim Really Think* (New York: Perseus Books Group, 2008). 또한 그는 이슬람의 미래를 다룬 다른 책에서에서 대다수 무슬림 대중은 이슬람 문명이 대립과 충돌보다는 비무슬림 문명과 공존을 원하고 있으며, 다수의 개혁주의적 무슬림들이 이런 주장을 여러 모양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역설한다. Cf. John L. Esposito, *The Future of Islam* (Oxford: Oxford Univ. Press, 2010)

⁵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뒤 중동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국가재건을 위해 공교육을 확산과 이슬람 사회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이슬람 신앙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Cf. Dale F. Eickelman, "Inside the Islamic Reformation," *Wilson Quarterly* 22(1) 80-89.

⁶ 2008년 미국 아틀란타에서 모인 "A Celebration of Heresy Conference: Critical Thinking for Islamic Reform"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개혁적 무슬림 학자 백여 명이 모인 이 대회의 목적을, 이 모임의 지도자 중의 하나인 Edip Yuksel은 이렇게 설명한다. "참석자 모두는 이슬람 세계관의 급진적인 개혁이 이 시대의 명령이라 믿는다. 이 개혁은 이성의 빛과 꾸란의 인도 아래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대회에 발표된 논문들은 Edip Yuksel이 편집한 책, *Critical Thinkers for Islamic Reform* (Peru: Brainbow Press, 2009)에 실려 있다. 이보다 1년 전인 2008년에 편집된 책 *Manifesto for Islamic Reform* (Peru: Brainbow Press, 2008)에서는 이슬람 개혁이 이성의 빛 아래서 오직 꾸란의 가르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꾸란 해석을 지배해 온 이슬람 신학과 폭력과 억압적인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하디스, 순나 등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이슬람이 합리적 유일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도전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슬람 역사 초기부터 씨름해 온 과제였다.⁷ 이슬람 문명은 일찍부터 풍부한 철학적 전통을 갖고 있고 이들은 중세 서구문명의 개혁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다. 때문에 오늘날의 위기는 이슬람 철학 전통의 재발견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이슬람 철학의 전통을 오늘날의 철학적 담론으로 되살려, 세속주의의 영향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슬람 세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이슬람 지도자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

현대 이슬람 철학의 개척자인 시드 후세인 나스르 (Seyyed Hossein Nasr)는 평생 이 과제를 갖고 씨름해 온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⁸ 후세인 나스르는 이슬람 철학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학자이다. 이란계 출신인 그는 자신의 철학적 과제를 지식의 재(再)신성화 (Re-Sacralization of Knowledge)이라고 말한다. 나스르가 주장하는 지식의 재신성화는, 피터버거가 주장한 지식의 세속화 과정 이전으로 지식을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대의 지식은 공적 (公的) 지식에서 영적, 종교적 의미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는데, 나스르는 이 과정을 참된 지식의 왜곡으로 이해한다. 지식에서 영적, 초월적 가치가 배제됨으로 인해 지식은 인간 삶의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현대사회에 제기된 많은 문제들은 이 왜곡된 지식관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영적 지식과 합리적 이성적 지식의 통합이며 이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바른 안목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후세인 나스르는 지식에서 영적, 초월적 의미를 되살리는 것을 지식의 재신성화(Re-Sacralization) 과정으로 설명한다. 즉 지식의 재신성화를 공적 영역에서의 지식에서 영적, 계시적 영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⁹

본 소고에서는 이슬람 세계의 철학적 전통을 현대적인 철학적 논의로 가져와 현대 상황에 맞는 이슬람 철학을 개척한 후세인 나스르 (Hossein Nasr)의 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신앙의 초월적인 계시와 서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지식의 차원을 통합하는 이슬람적 철학 체계를 추구하였다. 영원 철학 (perennial philosophy)의 관점을 접목하여 이슬람 철학의 지평을 넓혀 주었으며, 이를 통해 후세인 나스르는 개혁주의적 이슬람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 주며 더 나아가 이슬람과 타종교의 대화와 공존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철학은 이슬람과의 열린 대화를 가능케 해 준다는 면에서 기독교 선교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방적 이슬람 철학 전통을 열어

⁷ 이슬람 초기 무타질라 (Mu'tazilite) 학파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이슬람과 선지자의 계시를 합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계시의 신학적 해석을 강조한 아샤리 (Asharite) 학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까지 이슬람 철학의 합리주의적 전통을 이끌었다.

⁸ 후세인 나스르는 이슬람 철학을 정리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 또는 편집하였다. 그가 편집한 *Islamic Spirituality: Foundations* (1987) & *Islamic Spirituality: Manifestations* (1991)은 대표적인 이슬람 철학을 다룬 책들이며, 그외에도 *The Islamic Intellectual History in Persia* (1996), *History of Islamic Philosophy* (1996), *Islamic Philosophy from Its Origin to the Present: Philosophy in the Land of Prophecy* (2006) 등을 통해 이슬람 철학을 서구적 언어와 개념으로 재정립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⁹ <https://en.wikipedia.org/wiki/Resacralization>

가는 후세인 나스르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은 개혁주의적 이슬람과의 대화를 통한 건전한 선교적 접근의 길을 열어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후세인 나스르(Seyyed Hossein Nasr)의 생애와 철학적 여정

후세인 나스르는 현대 이슬람 철학의 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슬람 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이슬람의 철학적 전통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되살림으로써 이슬람 문명의 자부심을 회복하였다는 평가 뿐 아니라 이슬람과 외부 세계와의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슬람 세계의 철학적 전통을 현대적 언어로 재(再) 해석했으며 철학적 담론에서 신적(神的) 영역 (또는 지식의 근원으로서 초월적 계시의 역할)의 의미를 회복시킨 학자로 평가된다. William C. Chittick이 편집한 책 *The Essential Seyyed Hossein Nasr*의 서문에서 Huston Smith는 후세인 나스르의 철학적 기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것은 시드 후세인 나스르 (Seyyed Hossein Nasr)에 대한 내 개인적 찬사일 뿐 아니라 20세기 역사가 객관적으로 올리는 찬사이기도 하다. 철학자로서 가장 큰 영예가 있다면 그것은 동료 철학자들의 추천을 받아 『생존 철학자 총서 시리즈』 (the Library of Living Philosophers)에 포함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동료 철학자들이 그에게 헌정한 논문들을 담은 『시드 후세인 나스르의 철학 *The Philosophy of Seyyed Hussein Nasr*』¹⁰이 최근 동료 철학자들의 추천을 받아 『생존 철학자 총서 시리즈』 (the Library of Living Philosophers)에 포함되었다. 이 시리즈는 『존 듀이 철학』으로 시작되었고,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철학』 등이 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나스르는 세계 최고의 신학강좌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되는 기포드 강좌 (Gifford Lectures)에 초청되어 신학자로서도 최고의 영예를 받았다. 시드 후세인 나스르는 이 두 영광을 동시에 누린 유일한 학자이다. 기포드 강좌 내용은 항상 책으로 출간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지식과 신성함 *Knowledge and the Sacred*』이다. 이 책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서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¹¹

후세인 나스르는 전통 이슬람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를 서구 철학계에 소개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경건한 무슬림으로서 수피운동에 정통한 이슬람 사상가이며 동시에 서구의 물리학¹²과 철학에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이슬람 철학 전통 회복을 통해 이슬람 지성의 정체성 재정립을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무슬림 세계와 비무슬림 세계 사이의 지적 교류의 다리를 놓은 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

¹⁰ Lewis Edwin Hahn, Randall E. Auxier and Lucian W. Stone, Jr, (eds.) *The Philosophy of Seyyed Hossein Nasr* The Library of Living Philosophers v. 28 (Peru: Open Court, 2001).

¹¹ Chittick, William C. *The Essential Seyyed Hossein Nasr*. (Bloomington: World Wisdom, 2007), vii.

¹² 나스르는 경건한 이슬람 학자이지만 그의 학문적 뿌리는 과학, 특히 물리학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는 물리학으로 MIT공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학위는 이슬람 과학사 연구로 하버드 대학에서 받았다. 이슬람 신학, 철학과 함께 과학적 사유에도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

그는 전 생애를 걸쳐 다른 신앙들, 다른 문화들과 대화를 추구한 보기 드문 모범적인 이슬람 철학자이다. 나스르는 이슬람 과학의 르네상스를 외쳤을 뿐아니라 영원의 철학 (perennial philosophy)의 제 2의 탄생을 이끈 촉매자와 중재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감당한 철학자이다. 학자로서 활동하는 내내 그는 모든 형태의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반대자였다. 또한 그는 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이슬람 전통에 서서 근대주의(modernism)를 비판하였다.¹³

후세인 나스르는 1933년 4월 7일 이란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많은 학자와 의사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며, 특히 그의 아버지는 문학과 교육 영역에서 잘 알려진 학자였다. 1945년 후세인 나스르는, 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아버지를 따라 12세의 나이에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 17세에 미국 명문대인 메사추세츠 공대 (MIT대학)에 이란계 최초의 학생으로 입학해 물리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던 후세인 나스르가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신이 창조한 세계 연구를 통해 알라를 더 알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학 졸업과 함께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접고 진로를 인문학으로 바꾸게 된다. 그가 철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데는 유명한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Bertrand Russel)과의 대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후세인 나스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물리학에서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많은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제기되지도 않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주지도 못했다. 물리학이 “물리적 실재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소수의 학생이 강의가 끝난 후 버틀랜드 러셀과 했던 대화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는 물리학의 본질에 대해 질문했고 그는, 물리학은 물리적 실재 자체를 다룬다기 보다는 그것을 읽어내도록 돕는 수학적 구조들 (mathematical structures)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리학의 영역에서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 실재론’ (ontological realism)을 다룰 수 없다는, 서구를 대표하는 대학자의 이 답변은 더 이상 나를 물리학 연구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물리학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물리학 뿐만 아니라 학교와 서구까지도 떠나고 싶어졌다.¹⁴

대학 졸업 후 그는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 거기서 과학사를 전공하게 되었고 이슬람 과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1958년, 박사 학위를 마친 그는 이란으로 돌아가 테헤란 대학에서 철학과 과학사를 가르쳤다.

후세인 나스르 철학 형성의 배경은 크게 다음 두 가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서구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서구 철학자들, 특히 Rene Guenon, Titus Burckhardt, Frithjof

¹³ Terry Moore, “Introduction”, in Seyyed Hossein Nasr, *In search of the sacred: a conversation with Seyyed Hossein Nasr on his life and thought*, (Santa Barbara: Praeger, 2010), xi.

¹⁴ Seyyed Hossein Nasr, “An Intellectual Autobiography,” in Hahn, Lewis Edwin, Randall E. Auxier, and Lucian W. Stone, Jr. (eds.) *The Philosophy of Seyyed Hossein Nasr* (Chicago: Open Court, 2001) 16.

Schuon 등의 “영원 철학” (perennial philosophy)¹⁵ 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철학적 관점은 신비적 무아지경에 도달해 (종교적 틀을 벗고)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수피의 영성과 연결되어 이슬람 철학의 한 흐름을 형성하며 절대자는 특정 종교적 전통에 얽매일 수 없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한 절대자(the One)를 지향하며 결국은 정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이란에 귀국한 이후 만나게 된,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이슬람 철학 전통이다. 후세인 나스르 귀국 당시 이란에서는 이슬람 철학의 전통이 여전히 교육되고 있었고 이 철학적 전통을 잇고 있는 여러 이슬람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¹⁶ 후세인 나스르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 철학은 단순히 이성과 합리성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조명” 또는 “깨달음” (divine illumination) 속에서 발견되는 지혜들 역시 지식의 중요한 원천임을 발견한다. 후세인 나스르는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이슬람 철학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고, 언제 어디서나 밝게 빛나는 진리의 광선이 감싸도록 투명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¹⁷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와 조명(illumination)도 지식의 중요한 원천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이슬람 세계 속에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철학적 전통을 재해석해 비무슬림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소개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위의 두 영향은 이후 후세인 나스르 철학의 근간을 형성한다. 영원 철학의 틀, 즉 모든 종교적 근원은 한 절대자로 귀결되며 (비록 이슬람의 계시적 우월성을 인정하지만)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의 진리 도달 가능성을 수용한다. 나스르 철학의 영원 철학적 뿌리는 이슬람 철학 내에 존재하는 타종교와의 공존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 다른 그의 철학적 과제는 이슬람 철학의 전통을 재발견해 서구의 합리적 언어로 설명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슬람 철학의 전통은 신적인 조명 (illumination)을 중요한 지식의 원천으로 인정하는데 이 점은 후세인 나스르 철학의 근간을 형성한다. 지식의 두 측면, 즉 지식의 합리적 면과 지식의 초월적, 계시적 측면을 통합해 이슬람 철학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짧게 말해, 나스르 철학은 이슬람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덧입힌 것이지만 사실은 근대 이전 이슬람 철학 문헌들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것을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재해석해 설명한 것이다. 동시에 나스르는 전통적인 이슬람 철학의 본질을 명확히 하여 이란의 대학교육에 적

¹⁵ 모든 종교적 지식이나 교리는 하나의 영원한 형이상학적 근원에서 연유된다는 관점이다. 세계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신적 존재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철학적 토대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후세인 나스르는 특히 F. Schuon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¹⁶ 후세인 나스르가 영향을 받은 이란의 전통적인 이슬람 철학자들은 Sayyid Muhammad Kazim Assar, Allamah Sayyid Husayn Tabatab’I, Sayyid Adul-Hasan Rafii 등이다.

¹⁷ Muhammad Suheyl Umar, “‘From the Niche of Prophecy’: Nasr’s Position on Islamic Philosophy within the Islamic Tradition in Excerpts and Commentary,” in Lewis Edwin Hahn, Randall E. Auxier, and Lucian W. Stone, Jr. (eds.) 2001. *The Philosophy of Seyyed Hossein Nasr*. Chicago: Open Court, 2001), 90

용하려 했다. 그의 대표작인 Knowledge and the Sacred에 이슬람 철학의 전통이 잘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이란에 있던 기간 동안 잉태된 것이지만 실제 출판은 미국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나스르 철학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의 관심이 이슬람 전통에 대한 강조에서, 철학적 전통 그 자체로 옮겨가게 된다.¹⁸

후세인 나스르는 학자로서 뿐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테헤란 대학 교수로서 이슬람 철학 교육에 헌신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슬람 철학자 양성을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의 헌신의 결과로 1974년, “이란 왕립 철학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이 기관은 이슬람 세계 내에 이슬람 철학자 양성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Sophia Perennis*란 철학 저널을 발행해 이란 내부 뿐아니라 외부 철학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주도하였다. 근대 이슬람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1977년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에서 열린 “무슬림 (고등)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도했으며, “지식의 이슬람화” (Islamization of Knowledge) 운동¹⁹을 통해 이슬람 대학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에도 관여하였고 이슬람 세계의 대학교육 근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후세인 나스르는 이란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1984년 이래 템플 대학교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로서 강의하고 있다. 서구의 대학에 머물면서 그는 이슬람 철학 연구와 다수의 이슬람 철학자들을 양성하고 있다.²⁰ 또한 철학과 예술,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후세인 나스르의 철학적 과제들

후세인 나스르는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 이슬람 철학적 전통을 재발견해 보급하는 일과 함께 이슬람 철학을 서구적 언어로 재해석하여 서구 철학계에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의 철학적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근대 세속주의 문명은 여러 면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그 원인은 인간 존재에 필요불가결의 영역인 초월적 계시, 절대자에 대한 직관(tuition) 등이 지식의 원천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위기의 극복은 신적 계시를 지식의 원천으로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신적 영역을 천년 넘게 철학적 관점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 이슬람 철학의 재발견이 그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이성과 과학주의는 초월적 계시와 통합될 때 비로서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재신성화된) 지식의 회복을

¹⁸ William C. Chittick, *The Essential Seyyed Hossein Nasr* (Bloomington: World Wisdom, 2007), xiii-xvi

¹⁹ “지식의 이슬람화”라는 용어는 말레이시아 철학자인 Syed Naquib al-Attas가 그의 책 *Islam and Secularism*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팔레스타인 출신 이슬람 철학자 Ismail Al-Faruqi에 의해 이슬람 교육 근대 운동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이슬람 신앙적 토대를 유지하면서, 이슬람 내의 합리적 전통인 이티하드(ijtihad)와 과학적 방법론을 적극 수용하여 이슬람 고등교육의 근대화를 지향한 운동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Islamization_of_knowledge

²⁰ 필자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인 USM에서 이슬람 철학(M.A.)을 공부할 때 필자의 지도교수였던 Dr. Zailan Moris도 후세인 나스르 교수의 제자로서 동남아 이슬람 철학 활성화의 핵심적 역할을 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위해 이슬람 철학의 지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후세인 나스르의 이슬람 철학적 과제는 다음 몇 가지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神的 영역 (the Sacred)²¹을 포함하는 형이상학의 회복

서구의 근대 세계의 위기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편협된 강조와 초월적 영적 가치의 상실 에 기인한다. 신성함의 가치가 배제되면서 인류 사회는 삶의 본질적 의미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Haifaa Jawad는 서구 근대문명의 위기에 대한 후세인 나스르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스르가 주장하듯이, 근대의 세계는 (세상 이해에 있어서) 명료성, 목적, 원리를 잃어버린 세 계이며 초월적 영역이 배제된 세계이다. (신적인 계시를 배제한 근대의 세계는) 만물을 지배 하는 불변의 우주적인 원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직 신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지적 인 확실성 (certainty)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근대 세계는 의심에 기반한 과학과 끊임없이 변하는 불안정한 철학을 만들어냈고, 문화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근대적 인간은 신성함 (the sacred)을 포용할 능력을 상실했다. 피상성과 불안정성으로 대변되는 근대성의 추구로 인해 인류는 영원과 본질에 대 한 안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²²

후세인 나스르에게 있어서 철학의 최우선 과제는 (현대 철학에서 도외시되는) 형이상학을 되살리 는 것이다. 철학적 담론의 원천으로서 영성(spirituality)와 영원한 지혜 (perennial wisdom)가 회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의 근대 철학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담보하기 위해 철학적 담론에서 영적, 초월적 차원을 배제해 왔다. 지식의 대상은 물질적 세계 (*being*)로 국한되었으며 초월적 존재 (*Being*)는 더 이상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동양의 철학은 지 식의 한 근원으로서 초월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 왔다. 나스르는 이슬람 철학, 특히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수피즘 연구를 통해, 철학에서 형이상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슬 램은 전통적으로 신의 계시와 지식의 초월적 영역을 철학적 담론의 한 원천으로 인정해 왔다. 나 스르는 서구 세속주의적 철학의 좌절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이슬람의 형이상학이 적극적으로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²³

서구 철학과 이슬람 철학이 초월적 계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게 된 시발점을, 후세인 나

²¹ “the sacred”를 신성함 또는 신적 영역으로 번역하였다. 나스르 철학에서 the sacred는 절대자 또는 초월적 영역 또는 거기서 비롯되는 깨달음 등을 의미한다.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지식의 대상을 총체적으로 지 칭한다.

²² Haifaa Jawad, “Seyyed Hossein Nasr and the Study of Religion in Contemporary Society,” *American Journal of Islamic Social Sciences* 22(2) 2005:56-57.

²³ Seyyed Hossein Nasr, *Islam and the Plight of Modern Man.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Chicago: ABC International Group, Inc., 2001), 75.

스르는 중세 철학에서 찾는다. 중세 서구의 철학은 이슬람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합리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아베로스 (Averros: Ibn Rushd로도 알려졌음)의 철학적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 이후 서구의 철학은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의해 지배되었고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지식의 확실성 (certainty)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이슬람 철학은 아비세나 (Avicenna: Ibn Sina로도 알려짐)의 전통을 따랐다. 그는 천사 등 영적 존재를 우주의 일부로 인식했고 초월적 영역을 철학적 담론에 포함시켰다. 초월적 존재, 신적 계시, 신비주의적 경험 등이 지식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수라와르디 (Suhrawardi)나 조명학파 (school of illumination)의 등장과 함께 이슬람 철학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²⁴

후세인 나스르는 서구 근대문명의 위기를 신적 계시의 영역을 배제하고 철학적 사유를 물질세계 (being)로 국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온전한 철학은 철학의 대상이 되는 두 실체, 즉 초월적 영역과 초월적 존재에 의해 피조된 물질세계를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 전자는 절대자의 자기 계시나 신적 조명(illumination) 또는 직관적 깨달음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이고, 후자는 경험과 합리성에 의한 지식이다. 서구 철학의 위기는 초월자의 세계가 배제된 지식체계의 파행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근대 서구 철학의 파행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세계를 통합한 지식관을 발전시켜 온 이슬람 철학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후세인 나스르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신적 존재를 포함하는 이슬람 세계의 형이상학의 회복을 의미한다. 하이데거와 니체 이후 형이상학적 철학이 쇠퇴한 서양 철학과는 달리, 후세인 나스르를 비롯한 이슬람 철학자들은 두 세계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한 존재론, 형이상학을 철학적인 주요 영역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²⁵

(2) 신적 영역을 포함하는 인식론(Knowledge of the Sacred)

후세인 나스르 철학의 다음 과제는 이슬람적 인식론의 재발견이다. 기포드 강연을 담은, 그의 대표적 책인 『지식과 신적 영역』 (Knowledge and the Sacred)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이슬람 정신 세계가 서구로부터 유입된 세속주의로 인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속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슬람적 인식론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슬람적 인식론 재건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개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²⁴ *Ibid.*, 32.

²⁵ 세계인식에 있어서 후세인 나스르는 하이데거의 관점과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마음이 세계를 인지하는 것은 세계가 인간의 마음을 향해 그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후세인 나스르 역시 인간의 마음이 초월자의 영적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이유는 초월적 존재가 (계시나 조명 (illumination) 등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나스르의 관점은 하이데거와 구별된다. 하이데거의 인지 영역은 being으로서의 세계로 국한되며 초월적 영적 영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반해 나스르의 인지 영역은 초월적, 영적 영역까지를 포함한다. 한편, 하이데거는 인간의 주관성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비춰지는 세계의 그림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며 본질적으로 오류를 포함한다고 보는 반면, 나스르는 신의 계시가 완전하므로 계시에 의한 지식은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Cf. Thomas Dean, "Feature Book Review: Primordial Tradition or Postmodern Hermeneutics?" *Philosophy East and West*. 34(2), 1984: 226.

하나, 서구의 세속주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지식의 탈(脫)세속화 (de-secularization)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초월적 계시를 포함하는 지식의 재(再)신성화 (re-sacralization) 과정이다.

먼저 그는 지식의 세속화 과정을 검토한다. 서구 세계에서 진행된 지식의 세속화 (secularization)의 배경은 무엇인가? 나스르는 그 원인을 서구 철학이 이성을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오늘날 현대인(modern man)은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신적 영역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인간은 신비를 바라보는 것을 멈췄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무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동시에 객관화 인지 능력을 통해 파악되는 외부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상실했다.”²⁶

후세인 나스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크게 세 수준으로 구분한다. 지성(intellect), 이성(reason), 그리고 감성(sensation)이다. 나스르는 지성(intellect)과 이성(reason)을 구분하는데, 이성은 물질 세계를 인지하는 능력이라면 지성은 신적 영역(the sacred)에 대한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 나스르는 온전한 지식 회복을 위해 지성 (intellect)의 회복이 필요함을 역설한다.²⁷ 이는 나스르 인식론에 있어 매우 특이한 면이다.²⁸ 인간은 생래적으로 이성이나 감성을 통해 인지할 수 없는 신적(영적) 영역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으며 본능적으로 이와 연관된 지식을 추구한다. 동시에 “신적 영역”(the sacred)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신은 인간의 인지 능력 속에 신적 영역을 인지할 수 있는 지성(intellect)을 부여했다. 신은 인간에게 합리적 사유의 통로인 이성(reason)과 함께 영적, 초월적 영역에 대한 인지를 가능케 하는 지성(intellect)을 주었다고 나스르는 주장한다. 인간의 지성(intellect)은 절대자 또는 초월적 영역의 드러남 (계시)과 조우되면서 신적 영역 (the sacred)의 지식을 형성한다. 인간은 지성 (intellect)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적 영역, 신비적 경험, 계시 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 영역을 지식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대 서구 세계관이 수학적 논리에 기초한 이성을 지식 형성의 배타적 창구로 강조하게 되면서, 이성의 토대가 되는 지성(intellect)의 기능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그 결과 지식의 기초는 지성(intellect)로부터 이성(reason)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탈 신성화된 인간적 합리성” (de-sacralized human rationality)에 의한 지식, 즉 지성이 결여된 이성에 기초한 지식은 세계 인식에 있어서 편파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서구의 지식에서 “신적 영역”이 소외되었고, 모든 지

²⁶ Nasr, *Knowledge and the Sacred*, 1981. 2.

²⁷ 나스르는 이성(reason)과 지성(intellect)의 관계를 태양(the sun)과 빛 (its ray)의 비교를 통해 설명한다. 태양은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인 절대자로 비유될 수 있고 빛은 그 태양의 산물이 보이는 세계와 비교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빛을 통해 드러난 세계를 인식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의 근원인 태양을 인식한다. 전자는 이성의 역할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지성(intellect)의 역할로 비유할 수 있다. *Ibid.*, 4.

²⁸ 17세기 이전까지 서구 철학에서는 신적 영역(the sacred)를 인지하는 창문으로서 지성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를 의미하는 단어로 초기에는 헬라어인 “로고스”(Logos)를 사용했다. 후에 라틴어가 주 언어가 되면서 Logos는 라틴어인 *intellectus*, 즉 *intellect* 로 번역되었다. Intellect는 인간의 최고 단계의 인지 잠재력을 나타내며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

식은 세속주의적 세계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²⁹

이에 반해 이슬람 세계의 철학적 전통에서는, 지성 (intellect)을 지식의 주요 창구로 인정해 왔고, 초월적 영역으로부터 주어지는 조명 (illumination) 또는 깨달음을 지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함으로써 세속주의 지식의 편협성을 극복해 왔다고 나스르는 평가한다. “지성” (intellect)에 해당되는 아랍어는 *al-a'ql*이다. 이 단어는 “뉘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지성은 인간을 그 근원된 알라(절대자)와 “뉘어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마음은 *Al-a'ql* (intellect)을 통해 알라를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생명의 원천인 알라와 연결시킨다. *Al-a'ql* 은 지식에 신성함(the sacred)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³⁰

후세인 나스르는 신적 영역을 포함하는 이슬람의 지식관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초월적 세계를 향한 열린 창으로서의 지성 (intellect 또는 *al-a'ql*)의 존재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 그것은 “조명/깨달음의 길”(the way of illumination)이다.³¹

이 두 이슬람 철학의 대가의 인간운명에 관한 연구는 서구 기독교 철학과 이슬람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 서구의 철학은 보다 합리주의적 철학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반대로 이슬람 세계는 자신의 철학을 합리성보다는 지성의 우선성(the primacy of *intellection* over *rationation*)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Suhrawardi와 그의 영향을 받은 “조명 학파” (the school of illumination: *al-ishraq*)의 등장은 중세 이슬람 지식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모든 지식에는 궁극적으로 “조명적” (illuminative) 성격이 내재하며 지식의 신성한 차원에 대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³²

초월적 존재로서 절대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계시한다. 인간은 지성 (intellect)를 통해 이 계시를 받아들이며 신적 영역에 대한 앎을 지식에 담아내게 된다.

²⁹ “신적 영역” (the sacred) 배제는 다음 몇 가지 영역에서 서구 철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공적 지식에서 (인간 삶의 본질의 일부인 “신적 영역”(the sacred))이 소외되었다. 초월적 신비적 영역에 대한 영적 가치들은 지식에서 배제되었다. 둘째 세계 인식에서 왜곡이 발생했다. 우주를 닫힌 기계적 세계로 인식함으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추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셋째, 언어의 왜곡이다. 신비들(mysteries)로 가득한 초월적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를 도태시켰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화석화이다. 종교적 상징들은 의미를 상실했고 절대자와의 연결은 단절되었다. Cf. Nasr, *Knowledge and the Sacred*, 1981. 44-48.

³⁰ *Ibid.*, 12.

³¹ “조명의 길”(the way of illumination)이란 초월적 존재의 “스스로” 드러냄 (계시)을 의미하며, 신적 영역에 관한 지식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슬람 철학은 바로 이 신적 존재의 자기 계시를 지식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받아들인다. 온전한 지식은 합리적 이성 뿐아니라 신적 계시를 함께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성과 계시(또는 조명)를 통합한 지식관을 주장한 이슬람 학자로는 Suhrawardi와 Mulla Sadra 등이 있다. 후세인 나스르는 특히 Suhrawardi의 철학을 재발견해 그의 철학을 현대 이슬람 철학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했다. Cf. Seyyed Hossein Nasr, *Three Muslim Sages: Avicenna, Suhrawardi, Ibn Arabi* (Lahore: Suhail Academy, 1988)

³² Nasr, *Knowledge and the Sacred*, 1981. 38-39.

후세인 나스르의 인식론은 지성(intellect)을 통한 신적 존재와의 연결을 중시한다. 지식은 단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엄밀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적 영역에 대한 열린 태도와 영적인 성숙을 요구한다. “신적 영역”(the sacred)에 관한 지식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체험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가능한데 이는 높은 도덕성과 깊은 영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후세인 나스르는 초월적 영역에 대한 조명(깨달음)을 얻기 위한 철학자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궁극적 면에서 안다는 것은, 지성(intellect)과 직관(intuition)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불이 붙고 불에 의해 태워지는 경험을 할 때 비로서 불을 아는 것과 같다. 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존재의 대양 속에 직접 잠겨보아야 한다.³³

나스르 인식론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relatively absolute)라는 말로 요약된다.³⁴ 이 말은 나스르 철학을 잘 요약하는 표현이다. “신적 영역”(the sacred)에 관한 지식은 직접적 영적 체험을 통해 촉발되는데 이는 절대적 존재의 드러냄(illumination)을 전제한다. “신적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존재의 자기 드러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지식은 절대적(absolute)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적 영역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참된 지식은 보이는(피조)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인지를 포함한다는 면에서 지식은 상대적(relative)이다. “상대적인” 합리적 지식과 절대자의 계시와 조명으로 주어진 “절대적인” 신적 영역(the sacred) 지식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후세인 나스르의 인식론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3) 구원의 길로서의 지식

후세인 나스르는 서구의 과학적 지식이 외적인 세계 이해와 그에 기초한 물리적 세계의 통제를 추구하게 되면서 영적, 초월적 차원을 도외시하였고, 그 결과 지식은 인간 정신의 해방과 구원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평가한다. 나스르의 “신적 영역”을 포함하는 지식관의 또 다른 의미는 “구원으로서의 지식”(knowledge as deliverance)이다. 지식의 목적은 참된 자유와 구원에 있다. 그는 구원으로서의 지식을 힌두교의 아트만(atman)과 비교한다.³⁵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에 대한 지식(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과 궁극적인 자유(Ultimate freedom)의 성취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아트만 또는 “신적 영역”에 대한 깨달음은 그 지식을 가진 자를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적 영역”의 지식은 그것을 깨달은 자를 영적 성숙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자유와 해방에 이르는 것이며 이는 “신적 영역”을 배제한 세속주의

³³ Seyyed Hossein Nasr, *Islamic Philosophy from Its Origin to the Present: Philosophy in the Land of Prophec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103.

³⁴ Seyyed Hossein Nasr, *The Need for A Sacred Science* (Surrey: Curzon Press, 1993). 11.

³⁵ Nasr, 1981. 312

적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다. 지식은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 뿐아니라 초월적 존재를 알고 그 절대자와의 연합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신적 영역”을 포함하는 지식일 때에야 비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된 지식의 목적은 초월적인 절대자와의 연합이며 진정한 해방과 자유에 이르는 통로이기도 하다. 후세인 나스르는 “신적 영역”을 포함하는 지식의 회복이야말로 인류사회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식이며, 이러한 지식이 지식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영원의 철학(*Philosophia Perennis*)과 종교 다원주의 가능성

후세인 나스르의 철학을 떠받치는 전통 중의 하나는 영원의 철학 (Perennial Philosophy)의 패러다임이다.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절대자 (the One)을 지향하며 결국에는 한 곳으로 귀결된다고 믿는 철학 사조이다. 이 철학적 관점은, 비록 종교적 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종교적 굴레에서 벗고 절대자와 연합을 경험하는 최고의 단계를 지향하는 수피즘 전통과 유사한 면이 있다.³⁶

후세인 나스르는 초기 이슬람의 신학은 이슬람 외의 타 종교와의 공존을 인정했으며, 이슬람 외의 타종교를 부정하는 신학적 입장은 전통적인 이슬람의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알라가 각 시대와 민족들에게 각각의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 계시를 부여했으며 이렇게 형성된 종교들은 절대자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슬람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용납하며, 초기부터 타종교와의 공존을 허용했다. 최근에 나타난 배타적 근본주의 이슬람 신학은 서구 식민지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한다.

Adnan Aslan은 그의 책 *Religious Pluralism in Christian and Islamic Philosophy: The Thought of John Hick and Seyyed Hossein Nasr*에서 나스르 철학과 종교적 다원주의 문제를 다룬다.³⁷ Aslan은 나스르의 관점을 종교적 다원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 이슬람 상황에서 종교적 다원주의와 연관된 여섯 개의 명제를 분석한다.³⁸ 이 명제들을 통해 그는 이슬람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긍정

³⁶ 수피즘은 자신을 벗어나 절대자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이슬람 신비주의 신앙 운동이다. 수피즘의 최종적인 목표는 *fana' al-fana'* (무아의 경지 *annihilation*)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알라와의 완전한 합일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fana' al-fana'* 상태는 목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수피 의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서 자신을 부정하고 절대자의 사랑 안에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 개인적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기부정의 수피의식 과정은, 알라로부터의 직접적 계시, 철학적, 신비주의적 지식 등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절대자와의 연합에 이르게 되면 종교적 교리나 신학은 부정된다. C. A. Qadir, *Philosophy and Science in the Islamic World* (London: Croom Helm, 1988), 102.

³⁷ Adnan Aslan, *Religious Pluralism in Christian and Islamic Philosophy: The Thought of John Hick and Seyyed Hossein Nasr* (Surrey: Curzon Press, 1998).

³⁸ 그 명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긍정한다. 2. 인종, 피부색, 공동체, 종교의 복수성은 창조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공화와 영광의 표시이다. 3. 모든 계시 종교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 상태를 드러낸다면, 이슬람 (*islam*)으로 불릴 수 있다. (꾸란에 의하면 이슬람 *islam*은 특정 종교체제에 부여된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다. 4.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5. 하나님 앞의 종교가 이슬람 (*Islam*)이다. 6. 하나님과 마지막 날 심판을 믿고 의를 행하는 모

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세 가지 명제, 계시의 문제 (명제 1), 회심 (명제 4), 그리고 구원 (명제 6)은 나스르의 철학과 연관하여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제 1. 인류에게 주어진 신의 계시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긍정한다. (*The universality as well as the diversity of God's revelation to humankind is affirmed.*) 이슬람은 타종교도 신의 보편적 계시의 결과로 이해한다. 신은 각 종족과 나라마다 선지자를 보내 그들 상황에 맞는 계시를 준다. (꾸란 2:115) 신은 인류의 어느 누구도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은 동일한 내용의 진리를 선포했으며 그 계시는 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종교적 신학으로 형성되었다. 다양한 종교적 형태를 띄지만 그 내용은 신의 동일한 계시를 담고 있다.³⁹

명제 4.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There is no compulsion in religion.* (꾸란 2:256) 무함맛은 이슬람 외의 타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슬람 역사를 보면, 무슬림들에 의해 점령당한 지역에서 타종교들이 용인되었으며 이슬람과 타종교의 공존을 허용하였다.⁴⁰

명제 6. 신과 마지막 날 심판을 믿고 의를 행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Those who believe in God and the Last Day and work righteousness will be saved.*)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종교 다원주의적 관점이 발견된다. 꾸란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꾸란 2:62은 구원의 조건으로, 신에 대한 믿음, 종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언급한다.

이 명제들을 중심으로 Aslan은 이슬람이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꾸란의 구절들을 제시한다. 그런데 꾸란에는 타종교를 부정하는 가르침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슬람 외의 종교를 거부하며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선포한다. (꾸란 3:85)⁴¹ 이외에 꾸란 5:17, 98:6 등도 경전의 종교 (유대인과 기독교) 등 이슬람 외의 타종교인들이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한다.

종교 다원주의 관점에서 서로 상충되는 듯한 꾸란의 구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종교와의 공존에 대한 꾸란 구절을 부정하기 위해) 이슬람 신학자들은 꾸란 2:106을 근거로 “폐기의 원칙” (the principle of abrogation: *al-naskh*), 즉 뒤에 나온 선언이 앞선 선언을 무효화시킨다는 원칙을 제시

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Ibid.*, 187-196.

³⁹ *Ibid.*, 188..

⁴⁰ *Ibid.*, 191.

⁴¹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이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종교조직으로서의 이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꾸란 3:85은 이슬람을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다.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듯 보이는 구절들은 후에 나온 구절들에 의해 무효화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꾸란 2:62은 꾸란 3:85 가르침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에 꾸란 2:62의 선언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폐기의 원칙은 꾸란에 근거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이후에 나타난 신학적 견해에 기초했다고 봐야 한다. 폐기의 원칙의 근거가 되는 꾸란 2:106은 대체의 교리와 함께 꾸란의 어떤 가르침도 폐기될 수 없다는 선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하며 망각케하지 아니하되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을 너희는 모르느뇨 ”

후세인 나스르는 이슬람은 종교 다원주의를 용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신앙은 그 정점에서 유일자(the One), 절대자로 귀결될 것이라 설명한다. 이 면에서 나스르의 철학은 이슬람 세계에 타종교와의 공존의 길을 여는 개척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이슬람 문헌들은, 만약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그들도 구원될 것이라 증언으로 가득하다. 이것들은 꾸란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더 나아가서 “경전의 백성들”의 종교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도록 꾸란과 샤리아가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⁴²

맺는 말

9.11 테러 사건 이후 이슬람 세계와 비무슬림 세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사무엘 헌팅턴이 1993년 여름호 Foreign Affairs 지에 기고한 논문 “문명의 충돌?” the clash of civilizations? 이래 계속되어 온 토론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슬람 문명과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을 차지하는 무슬림들 중 대다수는 비무슬림 세계와의 평화적 공존을 원하고 있고, 폭력적 테러를 주장하는 극단적 근본주의 이슬람 추종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근본주의 이슬람 신학에 의해 무슬림들의 마음을 지배되는 것을 반대하는 개혁적인 무슬림 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 다수의 의식있는 개혁주의적 무슬림 지식인들은 이슬람의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후세인 나스르의 사상은 이슬람 세계 내부의 개혁적 움직임을 자극해 왔고 동시에 그를 위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근본주의 신학을 반대해 이슬람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이슬람 철학의 전통을 현대적 언어로 되살리려 노력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이다. 또한 그의 철학적 관점은 “신적 영역”(the sacred)의 언어와 토론을 잃어버린 서구 세계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⁴² Seyyed Hossein Nasr, “Islamic-Christian Dialogue: Problems and Obstacles to Be Pondered and Overcome,” *The Muslim World*. 88(3/4) 1998. 222.

비무슬림 세계와의 합리적 지적 토론의 문을 열기 위한 후세인 나스르의 철학적 시도들은, 무슬림을 향한 선교적 가능성이란 면에서도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 14억 무슬림의 닫힌 마음을 복음으로 열기 원하는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씨름하는 나스르의 철학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Bibliography

- 피터 버거 (편), 2002,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정치』 김덕영, 송재룡 옮김. 서울: 기독교서회.
- 사무엘 헌팅턴, 2003. 『문명의 충돌: 세계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 Aslan, Adnan. 1998. *Religious Pluralism in Christian and Islamic Philosophy: The Thought of John Hick and Seyyed Hossein Nasr*. Surrey: Curzon Press.
- Chittick, William C. 2007. *The Essential Seyyed Hossein Nasr*. Bloomington: World Wisdom.
- Dean, Thomas. 1984. "Feature Book Review: Primordial Tradition or Postmodern Hermeneutics?" *Philosophy East and West*. 34(2):211-226.
- Eickelman, Dale F. 1998. "Inside the Islamic Reformation," *Wilson Quarterly* 22(1):80-89.
- _____. 1999. "The Coming Transformation of the Muslim World,"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3):78-81.
- Esposito, John L. 2010. *The Future of Islam*. Oxford: Oxford Univ. Press.
- _____. and Dalia Mogahed, 2008. *Who Speaks for Islam? What A Billion Muslim Really Think*. New York: Perseus Books Group.
- Hahn, Lewis Edwin, Randall E. Auxier and Lucian W. Stone, Jr., eds. 2001. *The Philosophy of Seyyed Hossein Nasr*. The Library of Living Philosophers v. 28. Peru: Open Court.
- Jawad, Haifaa. 2005. "Seyyed Hossein Nasr and the Study of Religion in Contemporary Society," *American Journal of Islamic Social Sciences* 22(2):49-68.
- Moore, Terry 2010. "Introduction", in Seyyed Hossein Nasr, *In search of the sacred: a conversation with Seyyed Hossein Nasr on his life and thought*. Santa Barbara: Praeger.
- Nasr, Seyyed Hossein. 1975. *Islam and the Plight of Modern Man*. London: Longman.
- _____. 1981. *Knowledge and the Sacred: The Gifford Lectures, 1981*.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Three Muslim Sages: Avicenna, Suhrawardi, Ibn Arabi*. Lahore: Suhail Academy.
- _____. 1993. *The Need for A Sacred Science*. Surrey: Curzon Press.

- _____. 1998. "Islamic-Christian Dialogue: Problems and Obstacles to Be Pondered and Overcome," *The Muslim World*. 88(3/4):218-237.
- _____. 2001. "An Intellectual Autobiography," in Hahn, Lewis Edwin, Randall E. Auxier, and Lucian W. Stone, Jr. eds. 2001. *The Philosophy of Seyyed Hossein Nasr*. Chicago: Open Court. 3-85.
- _____. 2006. *Islamic Philosophy from Its Origin to the Present: Philosophy in the Land of Prophec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Qadir, C. A. 1988. *Philosophy and Science in the Islamic World*. London: Croom Helm.
- Yuksel, Edip. ed. 2009. *Critical Thinkers for Islamic Reform*. Peru: Brainbow Press.
- _____ ed. 2008. *Manifesto for Islamic Reform*. Peru: Brainbow Press.

Abstract

With the modern worldview and rapid secularization people in the West expected the religions would be disappeared from human minds. But the expectation could not be a fact. The situation goes the opposite. As Peter Berger said de-secularization was going on and the influence of religious fundamentalism became stronger since mid-20th century. Rapid growing of fundamentalism in Islamic world is a good example.

Muslim world is facing a challenge. Muslim worldview became rigid and Muslim society is isolated from non-Muslim worlds. It is an urgent question how Islamic world co-exists with other civilizations. Most of ordinary Muslims want to live with non-Muslims peacefully. Many Muslim intelligent who want to reform Islamic closed worldview try to find another way for the future of Islam. The challenge from inside is to rediscover Islamic identity, especially that of Islamic intellectuality.

Nasr agrees that the crisis faced by Muslims in the contemporary globalized context is caused by Western secularism which rejects knowledge of the sacred. To overcome it, he argues for the re-sacralization of knowledge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re-discovering the rich legacy of Islamic philosophy and re-constructing Islamic intellectuality which integrates both reason and spirituality. Nasr raises the critical issue of religious pluralism. Although Nasr believe that Islam is the true religion which contains the absolute truth, he also accepts there are genuine revelations apart from Islam.